

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, KBS 「관악산송신소」 재난대비 현장점검

- 태풍,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송시설 안전점검 -

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9월 25일(수) 한국방송공사(사장 박민) 관악산송신소를 방문하여 태풍,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송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.

특히, 최근 경남 등 남부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방송시설의 피해여부 확인 및 재난 대비 안전상태를 점검하고,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 및 민원 대응 체계를 살폈다.

김태규 직무대행은 “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취약·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” 이라고 강조하며, “비상전원 설비와 송신 장비 등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어 줄 것” 을 당부했다.

관악산송신소는 서울과 과천, 안양, 고양, 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TV, 라디오, 지상파DMB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. 끝.

담당 부서	지상파방송정책과 재난방송관리팀	책임자	팀 장	박성철 (02-2110-1442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우 (02-2110-1408)